

[1] 가락국 신화 모의 평가 2회

반	번호

이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또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릅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A]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네 목을 내밀어라.
	若不現也	만약 내밀지 않으면
	燔炸而喫也	구워 먹겠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기뻐 춤추게 되리라.”

구간은 그 말대로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합(金盒)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 백 번 절하고, 얼마 후 다시 금합을 싸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 탑 위에 두고 제각기 흠어졌다.

12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 보니 여섯 개의 알은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그들을 평상에 앉혀 절하며 축하하고 지극히 공경했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서 열흘 남짓 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어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같았고, 눈썹의 여덟 색채가 요(堯)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이 순(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즉위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 혹은 수릉(首陵) — 죽은 후의 시호 — 이라 했다. 나라를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伽倻國)이라 부르니, 바로 여섯 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 그는 임시로 궁궐을 짓게 하고 들어가 다스렸는데, ㉠**질박하고 검소하여 지붕의 이엉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석 자를 넘지 않았다.**

즉위 2년 계묘년(A.D. 43년) 봄 정월에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도읍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임시로 지은 궁궐 남쪽 신답평(新沓坪) — 이곳은 옛날부터 한전(閑田)이었는데 새로 경작한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답(沓)이란 글자는 속자(俗字)이다. — 에 행차하여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

다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말했다.

“이곳은 마치 여뀌 잎처럼 좁지만, 빼어나게 아름다워 열여섯 나한(羅漢)이 머물 만하다. 더군다나 하나에서 셋을 만들고 셋에서 일곱을 만드니 일곱 성[七聖]이 머물 만하여, 정말로 알맞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하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오백 보 둘레의 외성(外成)과 궁궐, 전당(殿堂)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 창고, 곡식 창고 지을 곳을 두루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국내의 장정과 공장(工匠)을 두루 불러 모아 그달 20일(즉위 2년 봄 정월)에 튼튼한 성곽을 쌓기 시작하여 3월 10일에 역사(役事)를 마쳤다. ㉡**궁궐과 옥사(屋舍)는 농한기를 기다려 그해 10월 안에 짓기 시작하여 갑진년(A.D. 44년) 2월에 이르러 완성했다.** 좋은 날을 가려 새 궁궐로 옮겨 가서 모든 정치의 큰 기틀을 살피고 여러 가지 일을 신속히 처리했다.

- 지은이 모름, ‘가락국 신화’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시조의 내력과 신성한 행적을 찬양한다.
- ② 단일 민족으로서 가지는 정통성을 잘 드러낸다.
- ③ 당시 사회가 수렵 중심, 제정일치임을 드러낸다.
- ④ 민간에 전승되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 ⑤ 생명, 우주, 인류의 탄생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한다.

2 위 글을 읽고 연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간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
- ② 구간이 흙을 파내는 동시에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 ③ 여섯 어린아이가 며칠 사이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
- ④ 여섯 임금이 모여서 신답평에 도읍을 정하는 모습
- ⑤ 가락국의 기술자와 장정이 모여 성곽을 짓는 모습

문 학

3 [A]와 | 보기 |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나서 매번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신물들에게 납치되곤 하였다. 어느 날,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임명되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 부인을 납치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한 노인이 그 지역의 백성들을 모아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하다.

龜乎龜乎出水路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남의 부녀 앗아간 죄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 네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入網捕掠燔之喫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 지은이 모름, ‘해가’

- ① [A]와 달리 | 보기 | 는 주술적인 성격이 약하다.
- ② [A]와 달리 | 보기 | 는 노동요의 성격이 강하다.
- ③ [A]의 ‘거북’은 천상적, | 보기 | 의 ‘거북’은 일상적 존재이다.
- ④ [A]와 | 보기 | 모두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이 나타난다.
- ⑤ [A]와 | 보기 | 모두 원래는 개인이 부를 목적으로 창작된 노래이다.

4 ㉠에서 알 수 있는 ‘수로’의 성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꼼꼼하고 성숙하다.
- ② 낙관적이고 차분하다.
- ③ 합리적이고 화려하다.
- ④ 수수하고 꾸밈이 없다.
- ⑤ 소탈하면서 반성적이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 ② 하늘의 힘을 빌려 일을 진행한다.
- ③ 욕심을 앞세워 주변을 힘들게 한다.
- ④ 일을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한다.
- ⑤ 권위를 세우려고 외부의 힘을 빌린다.